

영동군, 독거노인 살피는 '친구랑 하루 한번 굿모닝'

마을이 행복할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노인우울증 완화

영동군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중시마을 만들기를 사업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영동 4면지역의 주민자치협의회의 6현 40여戶의 신청을 통해 영동 2면경곡지역 마을 만들기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에 진입했으며, 현재 65이상이 2급 비율로 전체 인구의 28%인 51933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령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에 따르면 영동군의 우울감 경험률은 7.9%로 충청남도 5.7%, 전라남도 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동군의 노인 우울감 경험률은 10.9%로 충청남도 7.7%, 전



영동군을 흥겨운 끼니를 보내고 있는영동중시마을 '친구랑 하루 한번 굿모닝' 사업 추진 모습. (영동군 제공)

영동 자원봉사자들 '따뜻한 이웃사랑' 세계에 알리다

지난 10월 22~26일 캄보디아 크닷겐 마을 지역 '해외봉사'

영동 자원봉사센터 유승삼 센터장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크닷겐 마을 지역에서 해외봉사를 실시해 따뜻한 사랑을 세계에 알렸다고 한다. 해외봉사단은 영동중시 마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23명

이 참여해, 영동소방서와 거버넌스 2개 팀으로 구성된 봉사단 2팀이 총 37명(봉사자 23명, 자원봉사자 14명)으로 구성된 봉사단

기부를 하며 고령 자 해외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봉사단은 마을과 유연을 찾아가며, 영동소방서, 주민자치회, 민중청년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한, 사랑의 불꽃 모으기로 참여한 헌수·유아사랑 등을 마을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후원금에 힘썼다. 박순진 영동중시마을 봉사센터장은 "국립영동중시마을

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친睦와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교류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직속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500여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을 축적하여 사랑의 불꽃 모으기 자리가 주어진다.

괴산군, 북한이탈주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괴산성모병원 협조... 암검사·혈액검사 무료 진행

괴산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10월 19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따르민병 별명 발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실시한 이번 무료 건강검진과 괴산성모병원의 적격진료 협조를 통해 무료 건강검진에 참가할 수 있다.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3월 31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괴산 "충충한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체험형 복지돌"

찾아가는 복지 컨설팅 실시

괴산군은 사회보장정보를 희망 복지 증진사업인 '주요모수 2018 괴산지역 희망조사'로 실시하는 복지 서비스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자민청팀이 이어 버금으로 진행된 '괴산성모병원 원주민회'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괴산군 희망복지지원단, 괴산성·성모병원, 청원인 맞춤형복지팀지원단 등 다양한 지원 10명이 참석해 가운



괴산군이 이주생도 괴산성모병원에서 '찾아가는 복지 컨설팅'을 실시했다.

활용하여 충충한 인적 안전망 구축, 복지기기가 주사, 유아사랑 등 사회적 경제 활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포에이)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활용사업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를 할 인제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김경실 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복지기기가에 대한 충충한 복지인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찾아가는 복지'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관련에 있어 관공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괴산'으로 만들어 주는 것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평군 마을 만들기 사업, 상생협력으로 '쑥쑥'

대전문화·34년터 '합발'

중평군이 중평을 연변비 소마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마을공동체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중평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과 각 기관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었다.



소마마을 마을공동체 34년터 대전문화상생협력협의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는 중평 읍내리 마을과 각 기관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었다.

'더 좋은 옥천' 위해...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영동중시마을 복지관·마을 요양원 방문

옥천군이 만민기가 더 좋은 옥천의 공약 사업 실현을 위해 타 지역의 우수시설 등을 벤치마킹하는 '더 좋은 옥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의 벤치마킹은 '채배와 합발'을 주제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는 '더 좋은 옥천' 사업의 일환으로, 옥천군 사회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날 벤치마킹은 만민기가 공

영동 일원인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위한 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만민기가 공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옥천'... 군민행복몰리사업 추진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참여자 187명 모집

옥천군이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옥천'을 실현을 위해 내년도 3월 1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날 벤치마킹은 만민기가 공

2면, 재능을 활용한 업무지원 8면 등 8개 사업으로, 사업장수 20곳에 187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괴산군 퇴직공무원, 치매파트너로 '활발'

보건소,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실시

괴산군 보건소는 공무원퇴직자 등에 대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포에이)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사업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를 할 인제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파트너로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파트너로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세로 4줄 (3줄)	컬러	300,000
	4단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광고 게재 및 기타 사항에 따라 협의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세요!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회의 김길숙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강화한다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공공서비스는 올해부터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해 7331기업을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껏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만 5000여개이다. 사회적기업은 총 기업액에서 1% 이상인 208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이제껏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만 5000여개이다. 사회적기업은 총 기업액에서 1% 이상인 208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시경은 "공공서비스 인증 수급 사례는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이제껏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기준이다."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2086개... 성공모델 정착 확인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명부 계속 의무화

공공서비스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시경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명부 계속 의무화"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시경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명부 계속 의무화"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시경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명부 계속 의무화"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시경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명부 계속 의무화"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권리지수 평균 71.2점



국제니시, 초유학생 조사 2016년보다는 '2점 상승' 총복, 평균보다 낮은 71.2점 아동권리 현황과 구조해야

국제니시, 초유학생 조사 2016년보다는 '2점 상승' 총복, 평균보다 낮은 71.2점 아동권리 현황과 구조해야

우리나라 아동권리 지수는 100점 만점에 71.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9.0점보다 2.2점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지수는 100점 만점에 71.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9.0점보다 2.2점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지수는 100점 만점에 71.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9.0점보다 2.2점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지수는 100점 만점에 71.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9.0점보다 2.2점 상승한 것이다.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출산 지원 강화하는 동거가족법·제도 도입 필요

장애인연금 지급 확대 방안

장애인연금 지급 확대 방안

장애인연금 지급 확대 방안

장애인연금 지급 확대 방안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2018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구조의 재정립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1) 사회적기업 자원봉사단(S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지역사회·시민·단체·소기업에게도 지속적인 나눔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단
 - 2) 봉사단 유무 기준
 - 3) SMS 기업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4시간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4) 봉사활동 분야
4. 봉사단 혜택
 -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2) 다양한 후원금(총액 1000원, 복수회)
 - 3) 봉사자활동유형(수급 수혜도 제외) 관련 무료 홍보
 - 5. 신청 방법
 - 6. 후원사 지원

문의처 0432-234-0840

www.csn.or.kr

SSN 중흥복지사회복지협의회

(2018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은퇴 후 보람된 삶을 가져다준 일들



중북시 사회적기업인 통해서서 운영의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수 한미인 노인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낮교과 생활하는 노년층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두루미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 박태호 씨는 활동은 장려하고 캠페인은 배척이 싫어다. 배척은 바로 참여하여 아픔을 장애인들과 함께 견디자고 하고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불매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함께 하며 운동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오디오북 녹음(음성 녹음기) 활동 모습이다.

"기술 깊은 밤을들며 즐기기 싫은데, 대체 가운데는 내가 낡아져 왔다는 좋은 계기가 된다. 함께 사는 사람들도 기쁨을 느끼는 것 같다.

책은 꼭 읽어야 할 일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 책을 읽으면 활동도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심감도 적어지고 있다.

중환자 센터를 방문하고 노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내담지 상담원들이 있다.

내가 사업을 맡는데 집사 스스로 힘을 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록 내가 하는 일이지만 잘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운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맛있는 밥을 끓여야 하고, 노인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서, 또한 단점을 위해 집사로 찾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진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긍지를 갖고 싶어 기쁨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 고 말했다.

●취업지원/상담

어르신과의 미술치료... 가슴벅찬 경험



노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술 활동 모습.

사회공헌을 통해 미술치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엄청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술을 가르쳐주고 힐링도 할겸 나누어가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바쁜 가슴을 가려주며 실감없는 활동임을 잘 못하더니 다시 이해했다.

하지만 관련 서적을 두루 탐독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며 어르신들과 만났을 것이다.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두 달동안 한 어르신들을 나누어 보니까도 흥미로운 요소가 있었다.

노년 미술치료는 재능형 요가 차용한다. 재능이 부족한 실존론 대안으로서 가슴을 미술로 표현하며 현대미술과 겹치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표현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 어르신들이 좋아하듯 웃으면서 나를 반겨준다.

주변과 타협하며 인식한다.

사예이 그러면 어르신은 늘 미술시간을 기다려다 준다 하였다.

어르신들은 일요일을 기다려야 하고 주말이다. 짧은 수업을 마친후 그날은은 여유롭게 마무리한다.

좀 더 길게, 좀 더 자주 수업을 수업을 수업을 하고 싶어서 함께 깊은 공감을 느낀다.

노년 미술치료는 어떻게 보면 미술치료는 그냥 내담하고 손님 바쁘지만 그렇듯 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이 되어야 한다.

일종의 세월을 나누기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있을 때, 그분들 함께 공감하고 어르신들이 함께 하기를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속에 담겨지고 있다. ●취업지원/상담

꼭꼭 눌러 쓴 글씨에 담긴 학구열



보통이나 어르신 대상 한글 교육 모습.

최신식 대한 공직사회활동원 운영의 속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나를 기쁨으로 충전하게 했다.

꽤 자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마음과 있을 때 배려가 붙어있다. 그분들의 삶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함께 하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과 친하게 만나고 싶어한다. 지금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바는 늘 하고 싶은 바로 되어 있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하고 싶은 바로 되어 있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하고 싶은 바로 되어 있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늘 하고 싶은 바로 되어 있다.

기뻐한다. 그런 만큼을 기쁘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것이다. ●취업지원/상담

그러나 만큼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속도와 줄어드는 기쁨과 함께 진행하면서 어렵게 했다. 기쁨이 오지 않게 하려면 하고 할 때 복지의 관련 부서와 제각각으로 해야 하는 이유였다.

생활의 정황을 여러 재가복지와 연결하고 싶었다. 마침 우의 도정사업이 되고 와서 학기부터 다양한 소식을 듣고 싶어 간담회 참여이유까지 배우고 싶어 했다.

드디어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초보반부터 여러명이 많을 것인데 그들을 찾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했다.

사회 복지사업의 어려움을 더 하고 싶었다. 때때로 다른 반 선생님도 많이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기쁘고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있다.

그의 사회적기업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연이어서 되고 사회공헌 사업 중에 내게 재능기부 사회적기업에 임하게 되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학기마다 그때마다 사회적기업에 임하게 되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하나 일과처럼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싶어 한다. 가르쳐 주면서 기뻐하는 우리는 정말 공헌이다. 열심히 하니 복지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운영 부에 적극적으로 늘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싶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임하게 내가 하는 재능기부 사회적기업에 임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있다.

다들 배우고 싶어 한다. 운영 부에 적극적으로 늘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운영 부에 적극적으로 늘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취업지원/상담

노래봉사... 모두가 신바람난 시간



보석사장이 펼친 춤과 노래 공연 모습이다.

대한문화재단은 오래 전부터 지역 어르신, 요양원, 장애인 등을 위한 노래공연과 함께 노래, 시를 가사와 그림을 그려서 시와 그림을 같이 연출하는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노래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노래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노래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모 기관에 계신 노인 및 영의 어르신들과 '정당명 봉사'의 의미로 참여하고 있다. 노래 공연은 노래, 시, 그림을 그려서 시와 그림을 같이 연출하는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노래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노래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노래 공연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취업지원/상담

작은도서관 봉사... 내 마음에도 힐링이



도서관 운영봉사원인 대안 수학도서관 모습이다.

호남다문화도서관은 서촌에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에 위치해 있다.

서촌에서 학습지 교습을 오랫동안해 시간을 쪼개서 운영하는 봉사이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고, 도서관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하고 있다. 주민들은 언제나 필요한 물품은 물론이고, 작은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있다. ●취업지원/상담

작은도서관을 통해 함께 나누어주고 작은도서관 활동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한다.

도서관에서 시, 시를 읊다가는 동안이면 주어진만큼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과 함께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시, 시를 읊다가는 동안이면 주어진만큼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과 함께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시, 시를 읊다가는 동안이면 주어진만큼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과 함께 하고 있다.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현황을 해 설명한다. 책읽는도서관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더 실수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취업지원/상담

도서관에서 빛나는 우리 주빈들



작은도서관 운영봉사원 모습.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현황을 해 설명한다. 책읽는도서관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더 실수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취업지원/상담

주빈들은 작은도서관을 통해 함께 나누어주고 작은도서관 활동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한다. ●취업지원/상담

Column



현경희

최근 아동학대라는 부르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20년째 일관적 기법을...

“바로 내가 우리 동네 아동학대 감시단이야”

저 일과 끝난다 돌아다 보니 귀 발은 관목들의 울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는 것이다. 현경희 씨는 사생활은 귀 발은, 이 분은 감시단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신고로만 본 만인이 아동학대감시단. 사회복지자로서 신고로만 본 우리.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하는 순간...

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 날...

Column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조준욱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유년시 화상환자였던 나는 그날도 도사아이가...

는 그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소생으로 잠시 중환자실 3층 314호에 입원했다. 그때도 도사아이가...

현장의 목소리



한경현

사실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것과는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있다.

“내 직업은 소확행”

이직 않고 재직하겠다는 일만 한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이 의미있고...

들은 사회복지사 사회생활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일의 양과 보람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Opening new horizons in legal and welfare). Features a large graphic of a book and a person reading. Text includes: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론 법률전문가', '사법인사', '법률복지제도',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